

65

# 甲寅 “朝鮮” 總目次

(원간 조선 총목차)

원간 “조선”은 조선총독부 기관지였으며  
 1911년 6월호부터 1915년 2월호까지는  
 “조선총독부원보(朝鮮總督府月報)”라 했고  
 그 1915년 3월호부터 1920년 6월호까지  
 는 “朝鮮彙報(조선회보)”라 했다  
 1920년 7월호부터 “朝鮮”이란 이름으로  
 1935년<sup>7</sup>까지 계속 되었다

그러나 "朝鮮"은 조인 총독부 기관지  
 로써 25년간 지속되었다  
 필자는 국문개방사를 연구하는 과정에  
 서 서민지하의 우리나라 사정 등 종합적  
 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  
 던 중 총독부 기관지인 "朝鮮"이란 잡  
 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 
 그러나 25년간의 간행물인 300권의  
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니 우선 하는 수고를 덜  
 기 위한 총독부가 없을까 하고 탐문중

東京大學(동경대학)의 東洋文化研究所(동양문화연구소)에 비치 되어 있는 것으로 알  
았으며 1982년에 동경에 있는 친구  
金海坤(김해근) 사장에게 부탁해서 복사  
해 온 것이니

사기 등도 충목차의 도입 등을 느꼈음인지  
한일 해방 이후 해인 1911년부터 1935년  
까지의 25년간의 글은 분야별로 별분류  
하고 있다 ① 철학 ② 언어학 ③ 행정 ④ 체  
신 ⑤ 정치 ⑥ 사법 ⑦ 교통 ⑧ 재정

⑨ 경제 ⑩ 금융 ⑪ 농업 ⑫ 임업

⑬ 수산업 ⑭ 광업 ⑮ 상업 ⑯ 교통

⑰ 역사 ⑱ 지리 ⑲ 종교 ⑳ 기행문 ㉑ 동

서물 ㉒ 잡기 등으로 분류 하고 있다

한편 1913년 부터 1937년 까지는 월별

로 목차를 수록 하고 있다

결의 내용중 우편의 관심 등 붙는 것은

가령 勸業用(이용용)이 쓴 토지 조사를 마

치고 있는 것도 있고 1923년 10월 호에는

<압록강 교량. 조선 호텔. 경성역사 건축에

관하여> 라는 글도 있다 1926년 4월호에는

<경성 제국 대학의 규모·조각과 탐색> 이란

논문도 있다 1923년 7월호에는 <유자룡

이름 없는 號(호)를 사용하는 이조의 인물> 이란

이색적인 논문도 있다

그런가 하면 1931년 6월호에는 <조선에

있어 서의 지진대 기록> 이란 논문도 있다

~~이러한 이 목차는 <sup>재작성</sup> ~~본 문장~~ 만으로도  
1917년 9월호에는 <이조 500년간에 있어 서의 모법적인 돌다리>  
정지 ~~당장에~~ ~~본 문장~~ ~~참고~~ ~~본 문장~~~~

~~라는 결론을 얻어 있다~~  
~~공공을 위한 라~~ ~~많은 활동하기 바란다~~

20x10

1916년 12월호에는 <조선 최고(最古)의 지리서에 관하여>란

본물도 있고 1921년 4월 호계호 <조선의  
지도에 관하여>라는 글도 보인다

또한 1926년 11월 호계호 <조선의 옛날 지형  
(지형)>이란 본물도 있다

1923년 11월 호계호 <조선 최고 (最古)의 목조  
건물이란 · 세계노(南野)의사의 글도 실려 있다

어쨌든 이 목차는 제 목만 보는 것 만으

로도 즐거움 ~~고~~ 당쟁이 본문 문 찾아 보

고 싶은 총독을 느끼다

많은 활동을 하길 바란다